선장 등 4명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여부 주목

광주지법 선원 15명 재판…쟁점과 전망

‘미필적 고의’ 유무 놓고 첫 날부터 팽팽한 공방

침몰 원인·책임 가려야…매주 화요일 재판 진행

1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은 향후 뜨거운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임을 드러낸 자리다.

검찰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혐의로 기소한 이준석(68) 선장과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김영호(46) 2등 항해사, 박기호(53) 기관장 등 4명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재판에서 검찰측의 살인 혐의 적용을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구호조치가 미흡했다거나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먼저 구조되었다는 점에 대한 비난은 감수하지만 본인들도 사고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퇴선 당시 이미 배가 상당히 기울어 더 이상 배 안에서의 구호조치는 불가능하였으므로 살인이나 도주 등의 의사는 없었다는 게 대부분의 주장이다.

이들 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들도 검찰의 공소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그럴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 “나름의 구호조치를 했다”, “과실 이상의 이상의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법리 측면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 달라”며 팽팽히 맞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살인죄 “성립한다” VS “해당하지 않는다”=검찰은 승객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탈출, 공분을 산 세월호 이 선장 등 4명에 대해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 기소했다.

작위(作爲)란 일정 행위를 하는 것이고, 부작위란 일정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서 타인이 숨지거나 다치게 하는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작위범이 된다. 부작위 살인은 마땅히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경우에 적용한다.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이들 4명의 경우 ▲승객을 구호할 의무가 있고 ▲선원들을 퇴선 조치하지 않으면 익사에 이르게 되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가 있다는 점 등으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피고인 변호인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선장 담당 변호인인 이광재 국선 전담 변호사는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능한 구호조치를 이행했고, 배가 심각하게 기울어 구호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경과 다른 선원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조당한 피고인에게 잘못 이상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살인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특히 살인·살인미수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 법리적인 검토를 요구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방을 예고했다.

박기호 기관장 변호를 맡은 김상헌 변호사도 “미필적 고의 없었다”, “배의 기울기와 정신적 공황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작위에 의한 개별 행위 가능성 생각해야 한다”고 부인하는 취지로 반박했다. 그는 또 “유기의 고의를 추정하기도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1등 항해사 강원식(42)씨, 김영호(46) 2등 항해사도 변호인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과적이 지목되는 상황에서 청해진해운으로부터 급여받는 선박직 직원인 만큼 책임있는 위치에 있지 않고 유기의 고의가 없었다”, “조난 신고, 구조요청, 퇴선 지시했고 퇴선 뒤 구조 활동도 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등 항해사에 불과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범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VS “잘못 이상의 형을 물어서야”=살인죄 뿐 아니라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피고인들은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잘못 이상의 형을 묻는 것은 고려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타수 오모(58) 씨 등 일부 선원들은 변호인을 통해 배 안에서 구명벌 등을 터트리기 위한 조치를 시도하했고 퇴선 후 해경과 함께 승객과 익수자를 구조했다는 점을 밝히는 등 나름의 구조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선박)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선박간 충돌 뒤 제기되는 승무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법률을 조난 선박 승무원들에게 규정하는 것은 살펴봐야 한다”(수난구호법), “해경에 의해 구조된 것이지 달아난 것이 아니니 합당하지 않다”(특가법) 등의 논리를 펴고 있다.

침몰 원인에 대한 판단도 재판부가 가려야 할 몫이다. 피고인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과 관련, ▲과적 문제는 청해진해운이 전적으로 관리하여 선장 등이 개입할 수 없었다는 점 ▲ 배의 불법 증축이나 과적 등 구조적인 문제에 따른 침몰이지 조타 실수는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광주지법은 오는 17일 오전 10시부터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여는 등 매주 화요일에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이준석 세월호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10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유가족 “네놈들이 사람이냐” 울분…내외신 기자 200여명 몰려

10일 오후 1시 40분께 김병권 위원장 등 세월호 가족대책위 70명이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을 방청하기 위해 관광버스 4대에 나눠 타고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오후 1시께 진도에서 상경해 유족들이 탄 버스가 오기만 기다리던 실종자 가족 5명을 만나 재판정으로 향했다.

2시에 시작한 재판에 앞서 노란 리본을 가슴에 단 유족 70여명은 “네 놈들이 사람이냐. 짐승보다 못한 놈들. 금수’라고 꾹꾹 눌러쓴 피켓을 앞세우고 법정동 건물로 들어서려다 법원 직원에게 막혔다. 법원직원들이 피켓을 들고 법정에 들어설 수 없다며 유족들을 막아서자 잠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유족들은 이내 슬픔과 분노를 억눌렀다.

1차 공판이 끝난 오후 6시께 재판 방청을 마치고 나온 유족 일부는 교도소로 향하기 전 법원내 구치감으로 들어선 이준석 선장 등 선원들을 향해 “법정에서 네놈들이 거짓말만 하는 것을 다 지켜봤다. 어떻게 내 새끼들을 죽여놓고 그렇게 뻔뻔하게 자신을 변호하는 진술을 할수 있느냐”며 소리쳤다.

김병권 단원고 학부모대표 등 실종자 가족들은 이날 첫 재판을 지켜본 뒤 소회를 밝혔다.

그는 “선원들이 말이 안되는 소리로 일관해 억장이 무너진다. 조타수 1명과 다른 선원 1명은 탈출한 뒤 세월호로 돌아가 유리창을 개고 승객들을 구한려고 했다는데 말이 되느냐”며 “자기를끼리 입을 맞춘 것 같다”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법원 청사 안팎에는 혹시 모를 충돌을 막기 위해 경찰 200여명과 119 구조대 요원, 의사 등이 배치돼 있었지만 이렇다할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국민적 관심이 쏟아진 법원 주변에는 이슬람권 방송사 알자지라 방송, 미국의 CNN 등 외신기자 20여명을 포함 200여명의 국내외 기자들이 몰려 취재경쟁을 벌였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살인·업무상 과실·유기치사…

“구호조치 했다” 변명… 부인

선원들 주요 혐의와 해명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승무원 대부분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살인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배가 기울면서 부상해 구호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경의 지시에 따라 퇴선했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고의’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첫 재판에서는 승무원 11명의 입장을 들었고 17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나머지 4명의 입장을 들을 예정이다.

다음은 피고인 별 적용 법조와 인정 여부이다.

◇이준석 선장

살인·살인미수=꼬리뼈 다친 상황에서 가능한 구호 조치했다.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는 미필적 고의 있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희생자에게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승객들이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탈출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비춰 이해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임시 선장으로 계약직에 불과해 무리한 선박 개조, 과적, 증축, 평형수 부족을 통제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선원법 위반=배 수평을 잡기 위해 노력했고 구호 조치는 배가 급격히 기울어 이동이 불가능했다. 가능한 구호 조치는 했다.

◇1등 항해사 강원식

살인·살인미수=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첫 구조 교신을 하고 탈출 전까지 선사와 통화하며 사고 사실을 알렸다. 선장이 있는 상황에서 구호 조치를 지시할 입장이 아니었다. 구조되고 나서도 해경 구조정에 남아 승객 구조를 도왔다.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사고 원인인 화물 과적, 고박(결박) 등은 선사와 하역 업체가 관리하는 업무다. 급여를 받는 직원에 불과해 권한이 없었다.

◇2등 항해사 김영호

살인·살인미수=선장의 지시 없이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신분이다. 해경조차 대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의무를 다할 수 없었다.

업무상 과실선박매몰=과적, 고박 불량, 평형수 부족은 선사와 하역 업체 업무라서 권한이 없다.

◇기관장 박기호

살인·살인미수=퇴선 명령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해 기관부에서 판단할 수 없었다. 해경이 구조 작업 중이어서 기관부원만 탈출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유기치사=퇴선 명령은 고도의 판단이 필요한데 책임자 위치에 있는지 의문이다. 해경의 지시로 퇴선했을 뿐이다.

◇1등 항해사 신모씨

유기치사=구조 요청을 했고 승선 첫날이라 배 상황을 몰랐다. 비상 상황에서 해경이 도착하면 함께 구조하는 게 최선이라 생각했다.

◇3등 항해사 박모씨

업무상 과실선박매몰=조타수에게 변침(방향 선회)을 지시하고 제대로 하는지 옆에서 계속 살펴야 하는 것 아니다.

◇조기장 전모씨

유기치사=승선 첫날이라 배 상황 제대로 알지 못해 구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 배가 기울자 공포심에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조타수 조모씨

업무상 과실선박매몰=3등 항해사로부터 지시받고 우현으로의 급격한 진행 막기 위해 좌현으로 타를 15도까지 돌린 사실만 있다. 잘못 돌리지 않았다.

◇조타수 박모씨

유기치사=선장과 항해사의 구조 지시가 없었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와 연락하며 승객 구조가 가능한지 문의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대표전화. (062)234-3222
FAX. (062)234-314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5가 151-1번지

대표이사 최 금 환
http://www.joytour.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여름방학 무안출발 ↔ 다낭 전세기 (VN항공)총6회
7/30, 8/03, 8/07, 8/11, 8/15, 8/19
관광 다낭.호이안.후에 3박 5일 준특급 999,000~ 특급 1,099,000~
휴양 다낭/호이안 3박 5일 (호핑투어),노팁,노옵션 특급 1,290,000~ 초특급 1,499,000~
※불포함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유류할증료(130,000원)/기사, 가이드팁성인40$)

꽃보다 누나 따라 잡기 서유럽 /터키일주/발칸반도/스페인 .포루투칼
터키 일주 9일 2,590,000~
서유럽 5개국 10일 3,290,000~
이스탄불,스페인,포르투갈 9일 2,890,000~
이스탄불, 발칸 9일 3,190,000~
※불포함사항 : 유류할증료(₩420,000/4월기준), 기사&가이드팁(90유로), 싱글차지

[추석연휴]무안-대만 전세기! 9/6(토), 단1회! ALL 포함 조건!!!
실속 대만, 야류, 화련 3박4일 1,320,000
품격 대만, 야류, 화련 3박4일 1,420,000

드넓은 초원과 게르를 만날 수 있는 중국 내몽고 여행!! 출발일 : 7/4,11
무안-북경 내몽고 사막+초원투어 5일 1,000,000
불포함:가이드&기사팁(40,000원), 사막오토바이(60위안/1인)

아시아나항공으로 떠나는 북경 태항산
북경 태항산 4일 899,000~
북경 태항산 5일 999,000~

카멜리아로 떠나는 일본 히타 조이펜션 온천 여행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히타고급 빌리지로 GO, GO!!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고급 조이펜션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카멜리아 299,000
출발일 : 6/19,6/21,6/30,7/5,7/9,7/16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가족단위 8명이상 단독행사 가능 (별장 1동씩 드립니다), 주말(목,금출발은 요금인상됩니다)

강추 선착순 20명! 히타 특급 전통료칸 숙박 일본 큐슈 3박4일
카멜리아 399,000
출발일 : 6/19,6/21,6/30,7/5,7/9,7/16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

대마도 힐링투어 2일 (부산, 출↔도착) 239,000~
북해도 품격 초특가 (단1회 7/15)(광주, 출↔도착)
ALL포함 998,000

카멜리아 일본 큐슈 구중산 유후다케 등산 3일 149,000~
출발일 : 6/19,6/21,6/30,7/5,7/9,7/16
※포함사항 :왕복선박비, 펜션1박,가이드,차량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팁,유류세,부두세,선내식사
카멜리아 [all포함]일본 10대 명산 구중산 철죽 트래킹 4일 540,000
출발일 : 6/18 ※광주 출/도착, 전통료칸 + 후쿠오카 시내 특급호텔 (여름휴가철)
카멜리아 일본고급 료칸및 특급호텔숙박!! 규슈 3박4일 7/26,7/28,7/30 출발 확정 569,000~
항공 특급호텔숙박!! 오사카, 교토 ,나라 3박4일 799,000~
※불포함 사항 : 여권및 개인경비, 국내수송,팁별도,유류할증료

무안에서 출발하는 민족의 명산 백두산여행!!
무안-연길전세기!!!! (MU항공)
(6/27~8/15, 총 15회!! 매주 월,금 출발)
실속 연길,백두산(북파),용정,도문 4일 999,000~
품격 연길,백두산(북파),용정,도문 4일 1,089,000~
실속 연길,백두산(서파+북파),용정, 4일 1,059,000~
품격 연길,백두산(서파+북파),용정, 4일 1,159,000~
실속 연길,백두산(서파+북파),용정,도문 5일 1,089,000~
품격 연길,백두산(서파+북파),용정,도문 5일 1,199,000~
※불포함사항 :유류세(₩93,000), 중국단체비자(₩33,000), 가이드/기사팁

국내여행
항공 광주-제주도 3일 269,000~
※불포함:기사&가이드팁(₩10,000), 석식,유류할증료(₩24,200)
선박 목포-제주도 3일 159,000~
※불포함: 기사&가이드팁(₩10,000), 현지직불관광, 자유석식
광주에서 떠나는 울릉도 관광 3일 420,000~
※all포함 장급(합숙기준)
홍도,흑산도 2일 광주 출도착 230,000~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등록번호 : 제동다 2003-1호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투어
•공통조건: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자보험 가입(해외상품: 1억원, 국내상품 5천만원), 관광진흥개발기금, 공항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교통편 : 항공 및 선박, 전용버스 / 전지역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2억원 영업보증보험 가입 / 여행공제 가입업체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없음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택관광, 각국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품에 따라 다름